

◆ 일본 JBIC, 해외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기전략 발표

일본 국제협력은행(JBIC)은 4월 1일자로 해외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기전략을 발표했다. 동 전략은 공적개발원조(ODA) 지원을 위한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서, 2002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말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된다.

동 전략의 주요 내용은 첫째, 개발수요가 높은 부문을 선별하여 중점 지원하는 것이다. JBIC은 민간 부문에 의한 사회 인프라 개발이 활발한 개도국의 경우 빈곤퇴치, 환경개선, 인적자원 개발 등 사회복지 부문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.

둘째, 개발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개선과 함께 조직역량 강화 등 무형의 지식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. 이를 위해 JBIC은 개도국의 주거환

경 개선과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선진 환경기술 등 일본 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할 예정이다.

또한, ODA 지원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ODA 지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 증진에 노력할 뿐 아니라, 지원정책에 여론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ODA 지원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는 것 등이다.

일본 국제협력은행법 제26조는 매 3년마다 ODA 지원 관련 중기전략을 수립하여 외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, 1999년 12월에 수립된 최초의 중기전략은 금년 3월말로 만료되었다.

【黃秀泳】